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은 지난 15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 8명의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나눔의 집’ 방문…위안부 할머니 위로

“아픈 상처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떠난 할머니 추모비에 헌화

“건강 회복하시라” 복주머니 선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박옥선 할머니와 김화선 할머니 등 8명의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오후2시30분경 나눔의집에 도착해, 시설 내에 있는 법당을 참배한 후 (故) 강덕경, 박두리, 김순덕, 지돌이, 문필기 할머니의 위패를 모신 영단과 야외에 있는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관을 찾아, 할머니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박옥련, 김군자, 배춘희, 이옥선, 박옥선, 강일출, 김순

옥, 김화선 할머니가 함께 했다. 생활관 거실에서 할머니들과 만난 총무원장 스님은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갖고 계신 보살님들이 역사의 증인”이라며 “아직도 억울함을 증명받지 못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원장이 된 이후 빨리 찾아와야 했는데, 늦게 와서 죄송스럽다”면서 “보살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늘 건강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격려한 후 금일봉과 복주머니에 담은 단주를 선물했다. 김군자 할머니는 “스님들께서 이곳까지 찾아 주셔서 너무 고맙다”면서 “원장스님께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할머니들과

함께 다과를 같이한 후, 거동이 불편한 박옥련 할머니 방을 직접 찾아 “건강을 회복하시라”면서 손을 잡고 위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나눔의 집 원장 원행스님(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과 안산권 사무국장의 안내로 할머니들이 거처하는 방과 식당, 역사관 등 나눔의 집 시설을 돌아보았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스님은 “현직 총무원장 스님이 방문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할머니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행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주신 금일봉으로 할머니들에게 ‘특별공양’을 낼 것이라면 오늘 저녁에 공양을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나눔의집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이 수행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40여 분간의 방문을 마치고 오후 3시 15분경 나눔의집을 출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방명록에 서명한 후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경기 광주=이성수 기자

포교원장 초청…다문화 열린 강좌

25일부터 광주 KT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소장이주성)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광주 KT정보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정도에 피는 무지개나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스님(25일)과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스님(26일)이 초청 강연을

펼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소장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불교포교를 준비하고자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maha0703@ibulgyo.com

인드라마 월레정기법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생명·평화와 진리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

아기를 나누는 마당이 열린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오는 27일 오후3시30분 서울 신정동 인드라마 교육도장에서 ‘도법스님과 함께 하는 인드라마 월레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정기법회는 단절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삶, 욕망과 가벼운 즐거움만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해법을 도법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3월 법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기원 세미나

호남지역 불교계가 나서 오는 2012년 열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여수세계박람회 범불교위원회(상임대표 영조스님, 조계종립 송광사 주지)는 지난 13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전통문화의 가치조명과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지역 본말사 주지, 정관계, 학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여수세계박

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라며 “종단을 비롯해 불교계도 문화콘텐츠 개발과 육성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통문화로서 불교문화콘텐츠의 가치와 활용’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세계는 체험형 문화관광 상품에 열광하고 있는 만큼 수록재, 섬속의 사찰 등 이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남도지역이

간직한 맛과 숨씨를 담아 각 사찰의 고유한 사찰음식을 발굴해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종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는 ‘서남권 템플스테이 현황 진단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호남 불교계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통한 숙박지원을 지원하고 불교가 지닌 전문문화적 요소를 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템플스테이를 불교만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통과 현대의 편이가 절충된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정토론자로 나선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스님이 ‘사찰음식문화와 웰빙’,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템플스테이’, 김혜영 T&G경영전략연구소장이 ‘에코스테이 연계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여수 세계박람회 범불교위원회 총괄위원장 종삼스님(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철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범불교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여주... 여강선원 개원

4대강 사업 성찰

“물길을 막고 땅을 파헤치는 일 없이 온 생명이 함께 즐거이 살게 하는 자유와 평화의 숨길이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하는 수경스님의 목이 잡혔다. 그리고 이내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대강 개발 사업으로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환경과 못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수행자로서 우리와 한 몸, 한 생명인 자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 사람·생명·평화의 길을 위한 오체투지 순례를 펼쳐온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서울 화계사

주지)이 지난 13일 4대강 사업으로 시름하는 강을 살리기 위해 ‘여강선원(如江禪院)’의 문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다. 선원의 이름은 여강(如江). ‘흐르는 강처럼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수경스님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이날 여주 신륵사 앞 강변에서 열린 여강선원 개원식에 참가한 사부대중 100여 명은 수경스님과 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4대강 사업을 막고자 하는 서원이 담긴 기도였다. 사부대중의 염원은 기도문 소전의식과 함께 재로 변해 자연

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강선원은 신륵사 일주문 앞 부지에 임시 컨테이너 건물로 마련됐다. 5평 남짓 규모로 대웅전과 선원, 사무국 건물로 구성됐다. 남한강 여주보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진 선원은 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선방이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수행, 정진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평일에는 기도회와 도보순례를 실시하며, 주말에는 못생명을 위한 수록재 및 문화제 등을 봉행하며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여강선원장 수경스님은 “40여년 산중에서 기도 정진해 온 수행

자로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리는 밖에 할 일이 없다”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다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전 실상사 화엄학원 학장 연관스님, 전 문경 불암사 주지 함현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 신경림 시인,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을 비롯해 환경운동가, 화계사 신도 등이 참가했으며, 개원식은 현관식, 기도문 낭독, 기도문 소전의식, 참회의 강 순례 등에 이어 강을 향해 3배를 올리며 마무리됐다.

여주=염태규 기자



지난 13일 여강선원 개원식에서 수경스님이 생명의 강을 위한 기도문을 소전하고 있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

본 중에서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종단 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승려 사망 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올바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총무원 집행부와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선원, 올원, 강원, 비구니회 및 각 승가단체 등의 대표스님들과 공개 토론을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살피고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스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불기2554(2010)년 3월 23일(화, 음 2.8, 출가제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진행사회 – 종민스님(총무원 총무국장)

- 발제 –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하여-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검토-김형남변호사(신아법무법인) 이웃 종교(종단)의 사례 발표-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 토론 – 교구본사주지스님 대표, 중앙종회의원 법진스님, 법규위원장 성철스님, 선원대표스님, 영산올원 올주 철우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장 법광스님, 전국 비구니회 재무부장 성관스님·기획국장 송운스님,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대표 진오스님, 기타 승가단체대표 등 기타 추가 섭외 중